



인문대학 소식지

2025학년도 제2호 (통권 35호)



인문대학 행정실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062)530-3117

발행인_김태완 기획_강은영 편집_김성영

http://human.jnu.ac.kr

Contents

- 02 함께하는 인문학
- 03 교직원 동정
- 04-08 인사
- 09-13 학과 및 협동과정
- 14-17 연구소
- 18-19 취업
- 20-21 신간도서
- 22 광고

| 칼럼 |



김양현
철학과 교수

Vita Activa

자유롭고 활동적인 삶을 위하여

수, 학과장, 학장, 그리고 마지막 1년은 부총장으로 일할 수 있었다. 좀 더 잘할 것을 ... 다소간의 아쉬움과 회한이 어찌 없겠는가! 후회스럽고 반성할 일들을 가슴 깊이 묻어 두고, 용봉동에서 보낸 시간을 행복한 기억이라고 쓰고 싶다.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문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는 응원단이 될 것이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얼마간 철이 든 다음부터라고 생각한다. 틈나는 대로 이렇게 되문곤 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러한 물음들은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일 것이다. 또한 실천철학을 전공한 교수 이전에, 미련하고 나약한 한 인간으로서 매 순간 나를 일깨우는 질문들이다.

나는 두 사람을 내 삶의 모범으로 삼고 있다. 그 한 분은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다. 카잘스는 1973년에 97세의 나이로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첼로의 거장 혹은 첼로의 교과서라고 칭송했다. 95세가 되었을 때, 젊은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선생님! 언제 연주회가 있어서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십니까?” 사실 카잘스는 공식적인 활동을 접은 지 오래되었다. 그

런데도 매일매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카잘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I am beginning to notice some improvement.” 말의ニュ앙스를 살려 전라도 말로 번역한다면,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어이! 내가 요즘 찌끔씩 실력이 늘고 있다네!” 나도 카잘스처럼 할 수만 있다면 죽는 순간까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고, 해야 하는, 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끝까지 해보고 싶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롭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다.

내가 닳고 닳은 또 한 분은 2005년에 철학과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성진기 선생님이다. 이제 86세가 되었다. 선생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문학 대중화 운동을 참 열심히 해 왔다. 수많은 인문학 대중 강연회와 이벤트를 손수 기획하고 개최했다. 또 시민들과 함께 매주 철학 고전 텍스트를 공부하기도 한다. 몇 년 전에는 인문학 애호가들과 꽤 긴 시간 동안 독일 인문학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러처럼 많은 일들을 다 해내실까 생각해 본다. 번거롭거나 성가시지는 않으신지 ... 존경과 경탄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소망한다. 할 수만 있다면 내내 자유롭고 활동적인 삶을 살고 싶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생각해 본다. 전남대 80학번으로 입학했으니 45년 만의 일이다. 군 생활과 유학 생활 10년을 빼면 35년을 오롯이 이곳 용봉동에서 살았다. 1980년대에 대학은 젊은 청춘들의 무덤이었다. 젊은 학생들이 역사의 대의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투쟁하고 목숨을 바치던 시절이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학부생, 대학원생으로 1980년대를 웅케도 살아남았다. 지금은 거의 희미해져 버렸지만, 살아남은 자의 부끄럼과 죄의식이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괴롭혔다.

돌이켜보면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인 대학교에서, 그것도 모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 사이 조교, 시간강사,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

2025년 하반기 <함께하는 인문학>

전남대학교 인문대학(학장 김태완, 중어중문학과)이 운영하는,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이 사랑하는 고품격 인문학 강좌 <함께하는 인문학>이 2025년도 2학기 강연을 성료했다. 2학기는 특별히 정해진 주제가 아닌, 최근 인문대학에 임용된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제1강 인문업자와 함께 떠나는 타이완, 신화, 여행



제1강	일 시 : 2025.9.25.(목) 18:00-20:00
	장 소 : 김남주기념홀
	강연자 : 이석구 교수(중어중문학과)

제2강 『양직공도(梁職貢圖)』, 무령왕대 백제의 재도약을 묘사하다



제2강	일 시 : 2025.11.6.(목) 18:00-20:00
	장 소 : 김남주기념홀
	강연자 : 박찬우 교수(사학과)

제3강 [인문학 심포지엄] 인문학은 시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제3강	일 시 : 2025.11.26.(수) 10:00-12:00
	장 소 : 김남주기념홀
	강연자 : 유인태 교수(중어중문학과)

제4강 ‘우리’를 만드는 연대의 말들: 조선시대 계획과 계획문학의 내러티브



제4강	일 시 : 2025.11.27.(목) 18:00-20:00
	장 소 : 김남주기념홀
	강연자 : 최진경 교수(국어국문학과)

◆ **겸무**

본부	<p>영어영문학과 부교수 강의혁 전남대학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기간: 2025. 9. 25. ~ 2027. 9. 24.)</p> <p>영어영문학과 교수 나윤희 전남대학교 공채공정관리위원회 위원 (기간: 2025. 11. 1. ~ 2027. 10. 31.)</p> <p>국어국문학과 교수 조재형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 (기간: 2025. 11. 1. ~ 2026. 10. 31.)</p> <p>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연민 예산편성조정위원회 위원 (기간: 2025. 10. 24. ~ 2027. 10. 23.)</p> <p>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유인태 시용합교육위원회 위원 (기간: 2025. 12. 22. ~ 2027. 12. 21.)</p> <p>철학과 부교수 이원석 전남대학교 미래위원회 위원 (기간: 2026. 1. 26. ~ 2028. 1. 25.)</p>
부속시설	<p>사학과 교수 강은영 인권침해 심의위원회 위원 (기간: 2025. 11. 14. ~ 2027. 11. 13.)</p> <p>국어국문학과 교수 조경순 독일언어문학과 부교수 최동민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강의혁 언어교육원 운영위원회 위원 (기간: 2026. 2. 1. ~ 2028. 1. 31.)</p>

◆ **정년·명예퇴직**-2026. 2. 28.자

- 국어국문학과 임환모
- 독일언어문학과 조자경
- 중어중문학과 오만중
- 사학과 박상철
- 철학과 김양현
- 철학과 정미라

◆ **연구년**

사학과 교수 김병인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이준환
독일언어문학과 교수 정명순
(기간: 2025. 9. 1. ~ 2026. 8. 31.)

◆ **인사발령**-2025. 9. 1.자

전임교원 의원면직
독일언어문학과 조교수 전유정

신규임용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최진경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이석구
사학과 조교수 박찬우

◆ **승진**-2025. 9. 1.자

국어국문학과 한정훈
독일언어문학과 최정애
조교수 → 부교수

국어국문학과 조경순
국어국문학과 이준환
부교수 → 교수(정년보장)

◆ **학과장 / 주임교수 / 사업단 / 연구소**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한정훈
국어국문학과 학과장
(기간: 2025. 9. 1. ~ 2027. 8. 31.)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윤병용
대학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주임교수
(기간: 2025. 9. 1. ~ 2027. 8. 31.)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최준
대학원 한국어교육학협동과정 주임교수
(기간: 2025. 9. 1. ~ 2027. 8. 31.)

일어일문학과 교수 김용의
아시아문화연구소장
(기간: 2025. 10. 6. ~ 2027. 10. 05.)

영어영문학과 교수 백승현
영어영문학과 학과장
영어영문학과 주임교수
(기간: 2026. 1. 1. ~ 2027. 12. 31.)

철학과 부교수 이원석
자율전공학부 책임지도교수
(기간: 2026. 3. 1. ~ 2028. 2. 28.)

철학과 부교수 함형석
철학과 학과장
대학원 철학과 주임교수
(기간: 2026. 3. 1. ~ 2028. 2. 29.)

참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불어불문학과 교수 이수원

용봉에 뿌리를 내리며 떠오른 단상(斷想)



박찬우
사학과 교수

어느덧 전남대에서의 첫 학기를 마무리하고 새 학기를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반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간 듯합니다. 사학과와 인문대학의 교수님·직원분들,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무등산이 바라보이는 용봉의 언덕에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백제사를 전공으로 삼아 학위논문을 작성하였고, 주로 5~6세기 백제와 중국왕조의 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학위논문과 졸업 후 발표한 유사 주제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 보면, 그 요지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비전공자는 물론 초등학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히 말하자면, “백제는 중국왕조를 어른으로 모시며, 예의 바르게 쓴 편지를 올려 필요한 것을 얻으려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백제가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충실한 번국(藩國, 제후의 나라)임을 자임하고 이를 능숙하게 연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박사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백제의 주체성을 경시한다”거나 “백제를 중국왕조의 속국처럼 본다”는 식의 지적을 종종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대체로 저보다 20~30년가량 연상인 선학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백제의 주체성을 경시하지도, 백제를 중국왕조의 속국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논문에 그러한 취지의 서술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백제의 대중국(對中國) 접근 방식을 일종의 ‘외교 전략’으로서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사 연구의 가장 큰 과제는 식민사학의 극복이었습니다. 식민사학의 핵심은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이며, 흔히 반도적 성격론이라 불리는 인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한국의 역사는 정체되어 발전이 없고, 대륙과 해양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비자율적 반도 공간이라는 관점입니다. 해방 이후 선학들이 한국사에서 ‘발전’과 ‘주체성’을 찾아내고 이를 강조해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인식의 간극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저와 비교적 가까운 연배의 연구자들로부터는 우려의 시선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제 논문을 다르게 이해한 선학들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서로 다른 자장(磁場)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발전’과 ‘주체성’을 이야기하지 않는, 아니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수업에서 ‘발전’이나 ‘주체성’과 같은 키워드를 전면내내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키워드가 강조되는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것들에 주목하며, 그 문제의식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만 보고 빠르게 달리다 보면 곁의 풍경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좌우를 잠깐씩 응시해 본다면, 의외의 풍경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생각의 파편들을 연구와 수업 속에서 조금씩 정돈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역사에 대한 질문의 폭을 넓혀 가고 싶습니다. 전남대 인문대학이라는 학문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시간을 차분히 쌓아가겠습니다.

인문업자가 왔어요~ 남명으로 왔어요~



이석구

중어중문학과 교수

제가 좋아하는 『장자(莊子)』의 「소요유(逍遙遊)」에는 북쪽 바다(北冥)에 사는 곤(鯁)이라는 큰 물고기가 봉(鵬)이라는 큰 새로 변해 하늘의 연못(天池)인 남쪽 바다(南冥)로 날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곤이나 봉 정도의 인물은 못 되지만 용지(龍池)와 봉지(鳳池)가 있고 용봉동(龍鳳洞)에 자리잡은 전남대학교로 온 덕에 마치 봉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글의 시작부터 곤이니, 봉이니 하는 허무맹랑한 말을 늘어놓아서 이미 짐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신화, 그중에서도 중국 신화를 연구합니다. 신화라는 것이 보통 옛날 이야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고전문학을 보기도 하고 황당무계하다는 공통점에 이끌려 다른 나라나 민족의 신화나 문화를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신화를 연구하는 이유는 황당무계함을 좋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동안 우리의 학문이 그다지 주의하지 않았던 형식의 말에 대한 관심에서 신화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화라고 부르기 전부터 이야기는 전해져 오고 있었지만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신화(神話)'라는 개념은 19세기 말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미토스(mythos)'라는 말의 번역어로 생겨났다고 하지요. 그런데 미토스는 논리적인 형태의 말인 '로고스(logos)'와는 대척점에 있던 형태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영감이나 신의 권위에 의한 말로서 미토스는 이성에 의한 말인 로고스와 경쟁하던 입장이었지요.

인간의 삶에서 이성의 위치가 커짐에 따라 신화는 점차 학술의 대상에서 밀려나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삶에는 이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허무맹랑하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신화의 말들도 인류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부분이며 인간의 삶을 고찰하는 인문학으로서도 외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는 종종 스스로를 인문업자라고 소개합니다. 잡다한 분야에 관심도 있고 호기심도 많지만 이해는 깊지 않고, 논리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치부되어 학술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는 신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굳이 '학(學)'을 붙이기도 한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소개하는 말로 '인문학자(人文學者)'보다 '인문업자(人文業者)'가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업자'의 학술도 인정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전남대학교 인문대학과 중어중문학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호기롭게 인문업자를 자처하긴 했지만 저도 하는 일마다, 가는 길마다 확신에 차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요즘 우리 대학과 인문학의 사정도 그러한 듯 합니다. 인문학의 현실적 가치에 대한 의문은 이미 고질적인 상태이고 최근 AI의 급속한 발전과 현기증이 날만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학술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를 느끼기도 하실 것입니다. 비슷한 불안에 시달리는 인문업자로서 엄습하는 불안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 주문처럼 되뇌는 『장자』 「제물론(齊物論)」의 한 구절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인문업자도 따뜻하게 환대해주신 우리 대학의 선생님들과 인문학도들에게 드리는 인사의 글을 갈음하겠습니다.

'길은 가기에 따라 생겨나고, 사물은 부르기에 따라 그렇게 된다(道行之而成, 物謂之而然).'

허기를 채우는 온기



최진경

국어국문학과 교수

살던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 자리한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마음 한 곳에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을 느끼게 합니다. 새로운 도시와 직장을 앞에 두고 긴장해 있던 제가 마주한 인문대의 첫인상은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비밀상적인 장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식사는 하셨습니까?”라는 안부, 그리고 안부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식사 자리입니다. 늘 마음이 급해서였을까요? 서울에서는 끼니를 건너뛰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언제 한 번 밥 먹자.”라는 말은 안부처럼 달고 살았지만 그 ‘언제’가 구체적인 약속이 된 적은 그다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문대의 식구가 된 후로 혼자 밥을 먹어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간혹 끼니를 걸렀다는 말을 들으면 큰일이 난 것처럼 걱정해 주시는 선배 선생님들의 염려 덕분에 열어있던 몸이 풀리고 채워지지 않을 듯하던 허기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조선시대 관청이라는 제도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문학 활동, 관청계회문학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많은 종류의 모임이 계회라는 이름으로 벌어졌고, 이에 대한 상당량의 시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같은 관청에 일하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계회를 벌이고 이를 그림과 제명으로 기록했는지, 시와 산문 등을 통해 어떻게 문학적 수사로 자신들을 명명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문학이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 속에 놓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식과 시대감각을 드러내는 매개가 되었음을 밝혀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작품이든 사회와 제도, 다른 장르의 예술 등과 종횡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사람과 제도, 그리고 문학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관심은 제 공부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순간은 훨씬 이전의 기억에 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짝사랑의 아픔에 허우적거릴 때에 정철의 「속미인곡」과 임제의 「무어별」을 읽게 되었습니다. 몇백 년 전에 쓰인 문장 하나가 무엇보다 정확하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신기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시간을 건너 말을 걸어오는 고전문학이라는 것에 처음으로 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대학에 진학하며 이 두 사람이 활동하던 공간이 바로 이 호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뿐 아니라 16세기 조선의 문단을 별처럼 수놓았던 시인들은 대개 이 지역의 누정과 별장을 근거지 삼아 활동했습니다. 사람이 품은 정감을 토로하는 데 골몰했던 적지 않은 시인들이 호남을 하나의 요람으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은, 문학과 장소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문학은 그곳의 풍경과 기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빚어낸 어떤 감각 위에서 자리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평생을 서울에서 자라 온 제게 호남의 산자락은 무척이나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드럽게 너울지며 길게 뻗어 나가는 산자락은 마치 먼 곳에서 온 낯선 타지인에게도 품을 내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너르게 품어낼 듯한 그 곡선은, 어느 순간 엄마의 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공간의 감각이 사람들의 언어를 누그러뜨리고, 마주 선 사람의 혹은 내 마음을 응시하게 하며, 시의 결을 만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임용되어 벌써 한 학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무척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책으로 읽고 연구 대상으로만 접하던 공간에서, 이제는 함께 밥을 먹고 안부를 묻는 일상을 살고 있다는 감각은 두근거림과 책임감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타지에서 왔지만 이곳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도 아마 제 안에 겹겹이 쌓인 시간의 지층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지역의 한문학을 발굴하고 소개하며, 호남 한문학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읽고 잇는 작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몇백 년 전의 문장이 지금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과 함께 다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새내기 교수이지만 인문대의 한 자리를 데우는 온기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먹고, 배우고, 사유하는 시간 속에서 이 공동체의 식구로 차분히 뿌리 내리겠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문적 길_공력(功力)의 여향(餘響)과 여향(餘香)



신해진
국어국문학과 교수

여향(餘響): 과거에 머물지 않고 후학들의 연구 속에서 다시 울리는 작업들

여향(餘香): 글 너머 삶의 태도로 남은 연구자의 고귀한 자산

2024년 여름,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석좌교수로서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열고 있는 신해진 교수. 이 글은 새 학기를 맞아 강의실과 연구실, 그리고 행정 현장에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온 단과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그의 학문적 여정을 되짚어보고자 마련되었다.

2024년 8월, 정든 강단을 뒤로하고 이제는 석좌교수라는 새로운 자리에서 나의 학문적 길을 되돌아본다. 이 돌아봄은 지나온 성과를 정리하는 매듭이 아니라, 내가 지켜온 사유의 방식과 태도를 다시 묻고 그 사유가 오늘날 어떤 울림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다. 내가 걸어온 여정은 언제나 고요했으나 성실했고, 화려한 선언보다는 축적과 검증,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자료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왔다.

나의 학문은 무엇보다 '기록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했다. 이는 화려한 해석보다, 남겨진 자료를 있는 그대로 읽고 존중하려는 태도에 가깝다. 조선시대의 실기(實記)부터 국문·한문소설, 몽유록, 고수필 등에 이르기까지 내가 다루어 온 텍스트들은 대개 해독이 어렵고 접근이 까다로운 것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자료들을 단순한 '연구 대상'으로 소비하지 않았다. 한 줄 한 줄을 대면하듯 읽고, 판본을 대조하며, 문장의 미세한 결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는 내 연구 전반을 관통하는 기본 자세였다. 그렇기에 나의 학문은 속도를 지향하지 않았고, 성과를 서두르지도 않았다. 대신 반복과 축적, 그리고 긴 시간을 견디는 인내 속에서 단단한 내공을 길러 왔다.

이러한 태도는 나의 역주(譯註) 작업에서 명징하게 드러난다. 고전 문헌을 현대어로 옮기는 일은 해석의 과잉이나 설명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나는 번역에서 '절대적인 시간', 곧 설명보다 대면과 숙독에 가까운 시간을 투여하면서도 늘 '절제'를 지키고자 했다. 원문의 구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독자가 텍스트에 스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내만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내가 추구해 온 원칙이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텍스트와 독자를 동시에 존중하려는 학문적 윤리의 문제였다. 나의 역주서들이 연구 현장에서 오랜 시간 신뢰를 받아 온 이유도 바로 이 엄격한 절제에 있다고 믿는다.

나의 연구는 개별 텍스트를 고립된 섬으로 두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기록이 생산된 맥락, 기록 주체의 위치,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 수용된 양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문헌은 단절된 과거의 결과물이 아니라, 시대와 시대를 잇는 매개로 살아난다. 특히, 조선시대 전란기 기록을 다룰 때 이러한 관점은 긴요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의 기록들을 단순한 영웅담이나 비극으로 치환하기보다, 그 안에 중첩된 기억의 층위와 서술 전략을 차분히 분석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처럼 나의 학문은 유행하는 이론을 앞세우기보다 자료를 통해 사유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빠른 성과와 즉각적인 평가가 미덕이 된 오늘날, 이러한 방식은 자칫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나는 나만의 리듬을 지키려 애썼고, 학문이란 본디 '시간을 정직하게 통과해야 하는 작업'임을 스스로 증명하고자 했다.

나의 공력(功力)은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빛어졌다. 공력이란 단번에 드러나는 재능이 아니라, 오랜 수련과 성찰이 몸에 밴 감각이다. 내 연구 성과들이 휘발적인 폭발력보다는 일정한 밀도로 꾸준히 축적되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공력은 학문적 판단의 안정성으로, 텍스트를 대하는 일관성으로, 그리고 연구 전반에 흐르는 깊은 신뢰감으로 발현된다고 생각한다.

학문적 길_공력(功力)의 여향(餘響)과 여향(餘香)

퇴임 이후 한 걸음 떨어져 나의 학문적 여정을 바라본다. 그러나 내가 남긴 작업들은 과거형으로 박제되지 않는다. 나의 연구는 여전히 읽히고 인용되며, 새로운 연구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공력의 여향(餘響)이다. 강단에서의 직접적인 교수(教授) 시간은 일단락되었을지라도, 나의 작업은 후학들의 문장 속에서 다시 울릴 것이다. 자료를 대하는 엄정함과 해석의 절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정표가 되어 연구 현장을 조용히 지탱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는다.

동시에 나의 학문에는 여향(餘香)이 있기를 바란다. 이는 영향력과는 또 다른 차원의 향기다. 학문을 직업이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 동료와 후학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글로 온전히 다 담아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함께 시간을 보낸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조용히 작용한다. 강한 주장이나 명시적인 교훈이 아니라, '저토록 묵묵히 연구할 수도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전해지는 은은한 향기 말이다.

나의 길이 후학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소박하다. 학문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으며, 매끈한 성과만으로 평가될 수도 없다. 텍스트 앞에서의 성실함, 자료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판단을 유보할 줄 아는 절제는 결국 연구자의 가장 큰 자산이 된다. 이 자산은 당장 측정되지는 않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는 더욱 선명해진다. 내가 오랫동안 공들여 온 작업들이 결과적으로 디지털 인문학이나 AI 코퍼스 구축과 같은 현대적 흐름과 자연스럽게 맞닿게 된 것 또한, 유행을 쫓아서가 아니라 본질을 지키며 쌓아온 공력이 지닌 선도성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학문적 길은 하나의 완결된 모범이라기보다, 끊임없이 이어질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고자 한다. 석좌교수로서 앞으로 이어갈 나의 행보 또한, 학자로서 지켜내야 할 근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묵묵히 보여주는 여정이 될 것이다. 그 길위에서 축적된 공력이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에 울림(餘響)을 주고, 은은한 향(餘香)으로 남아 새학기를 시작하는 후학들의 발걸음을 따스하게 이끌어주기를 소망한다.

국어국문학과

2025년도 2학기 새날열기 운영

2025년 9월, 국어국문학과(학과장 한정훈 교수)는 학과 구성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학생 자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어국문학과 새날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학과 구성원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학과 교원과 재학생을 포함한 총 62명이 참여하였다. 행사에서는 학과 운영 방향 공유 및 학생회 예산 결산과 사업 계획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학과 연구회 사업계획 보고를 통한 연구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자유 발언과 안건 논의 과정에서 학과 운영과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공유하며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연구회 사업 계획 공유를 통해 학문 연구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전공 학습과 연구 활동 간의 연계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재학생들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과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25학년도 정기학술조사 성료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어국문학과는 지역문화 자원의 발굴과 활용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역문화 인문 사회 융복합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지역어문학과 문화 원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미래 자원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기획되었으며, 교원과 대학원생, 학부생 등 총 130여 명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과 역량 교육, 현장 방문 조사, 간담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상북도 경주 일대의 역사 유적과 박물관, 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문화 자원의 형성과 보존, 활용 방식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어국문학과 재학생들은 지역문화 자원이 지닌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살피며 문화콘텐츠로 확장될 가능성을 모색하는 활동에 집중하였다. 또한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역량 교육을 통해 지역문화 연구의 방향성을 학습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는 조별 주제를 설정하여 자료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강연과 간담회는 지역문화 자원의 가치 창출과 미래 자원화 전략을 공유하며 학문과 실천의 관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제5회 박지은 작가, 제3회 이미란 작가 공모전 수상자 발표

국어국문학과는 학과를 빛낸 작가들의 창작 정신을 계승하고 서사 및 콘텐츠 창작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약 두 달간 창작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본 공모전은 박지은 작가의 업적을 기리는 영상콘텐츠 창작 기획서 공모전과 이미란 작가의 문학적 성과를 계승하는 서사 창작 공모전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에게 창작 기획과 집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공모전은 서사 창작 분야와 영상콘텐츠 기획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유 주제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발상과 서사 구성 능력을 폭넓게 평가하였다.



특히 주제의 참신성, 서사 구조의 완성도, 문장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사 과정을 통해 총 6명이 수상하였으며, 결과는 학과 공식 행사인 국문인의 날에서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 학습에서 습득한 문학적 지식과 창작 경험을 실천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으며, 창작 분야 진로 탐색과 취·창업 역량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영어영문학과

2025 영문인의 날: Four Seasons 성황리 종료

영어영문학과(학과장 백승현 교수)에서는 2025학년도를 마무리하며 '영문 사계절: Four Seasons'를 테마로 영문인의 날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단과대학 맞춤형 자율혁신 지원사업으로 진행한 각 소모임별 활동 보고 및 소모임 특성을 살린 부스를 각각 진행하여 학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영어영문학과 <아카이브 2025>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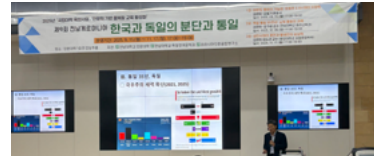
영어영문학과에서는 2025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단과대학 맞춤형 자율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모임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아카이브 2025>로 묶어 발간하였다. 영어영문학과 학생자치회, 문학작품연구 소모임 LPS(Living Poets Society), 영화연구 소모임 MINT(Move Insight

& Network Team), 국내/외 시사탐구 및 소셜라이징 소모임 ESC(ELL Social Club)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한 프로그램은 소모임 활동 내실화 뿐 아니라 전공을 활용하여 재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직무 분야 역량강화, 영어영문학과 구성원 간의 친목까지 제고케 하였다.

독일언어문학과

전문가 초청 특강 제9회 전남게르마니아 개최

독일언어문학과(학과장 지영은 교수)는 2025학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유라시아인문융합연구소(소장 최동민 교수)와 함께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홀에서 2025년 9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한국과 독일의 분단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포럼을 실시했다. 이 포럼은 각각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 트럼프 2.0시대 한반도에 봄은 올 것인가>, <독일통일 35주년: 독일통일의 경험과 한국의 통일 교육>, <거대위기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 냉전시대의 종언과 탈냉전의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독일의 분단과 통일의 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하에 한국 분단체제의 기형성을 확인하고, 분단체제의 극복 가능성의 모색을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였다. 세 차례의 특강 모두가 다양한 대학 전공생들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지역 시민의 참여로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특강에 이어진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사회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와 토론에 동기부여하는 본 행사 운영의 목적과 취지를 확인하였다.



졸업생 및 전문가 초청 강연

독일언어문학과는 2025학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2025년 11월 28일과 2025년 12월 02일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홀에서 독일언어문학과 졸업생 및 전문가 초청 강연을 실시하였다. 두 강연에서는 각각 독일언어문학과 졸업생(유수연, 김지연)과 전문가(Tanja Olbrich 주한독일문화원 부원장)를 초청하여 참가 학생들의 진로 설정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 다양한 업종의 직무 이해를 목표로 강연을 실시했다.



독문학제 개최

독일언어문학과에서는 학과의 핵심교육 목표인 공연예술 전문가 육성의 일환으로 2025학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공연예술 교육 고도화를 위한 비교과·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였다.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에 걸친 이 프로그램은 약 30명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연극/연출 전문가 특강 및 컨설팅, 다양한 연극 관람, 연극 작품 무대 시연 및 촬영/편집을 진행하였다. 연극은 스위스 극작가 프리드리히 뉘렌마트의 '노부인의 방문'이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그 결과물인 연극을 무대 시연하였다. 독문학제 운영을 통해 학과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연극 산출물을 아카이빙 자료화하여, 수업 등에 실제 활용하는 등 교과 영역 능력의 제고를 이끌었다.



불어불문학과

프랑코포니문화제 개최

1학기 불어불문학과(학과장 민진영 교수)와 프랑스문화·지역학연구소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11월 중 3주 동안 '프랑코포니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프랑코포니 영화 상영 및 영화 감독과의 대화, 프랑스어 말하기 대회, 프랑코포니 학술 발표회, 프랑코포니 유학특강, 페탕크 체험, 음식부스, Soirée des francophones(불문인의 밤)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전남대 구성원과 지역민들에게 프랑코포니 문화를 소개했다. 프랑코포니 문화제는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어와 프랑코포니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프랑코포니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월 18일(화) 16시부터 프랑스 단편영화 <물을 건너서>, <태양아 이제 안녕>, <할아버지>의 작품 수급 및 상영을 진행하였으며, 상영 후에는 프랑스 현지 감독과의 줌(ZOOM) 화상 대화를 통한 GV를 실시하고 통역 및 진행을 담당하였다. 11월 14일(금) 13시에는 페탕크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프랑스인 교환학생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한국과 프랑스 문화를 잇는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11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총 5일간 루미에르 사진전과 함께 프랑스 사진작가 피에르(Pierre)의 사진 전시가 진행되었으며 뱅쇼·크로플 등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여 프랑코포니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함께 운영하였다.

11월 19일(수)에는 전남대학교 학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프랑스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대회의 주제는 「프랑스 속의 한국, 한국 속의 프랑스」였으며, 인문대학 3호관 소강당에서 전남대학교 구성원, 지역민 및 외국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언어를 매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24일(월)에는 불어불문학과와 프랑스문화지역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프랑코포니 유학 특강을 진행하였다. 주한 퀘백정부 대표부 문화교육담당 사무관 이윤희 강연자가 「퀘백의 문화예술 및 교육환경」을 주제로 유학 생활 전반에 대해 강연하였다.

2026년 불어불문학과 동계 프랑스어 캠프

불어불문학과는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2026년 동계 외국어 능력 신장 프로그램(프랑스어 캠프)」을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프랑스어 학습 단계별 맞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캠프는 신입생반을 비롯해 DELF A1, A2, B1/B2 과정 등 총 4개 분반으로 운영되며 프랑스어 능력 인증시험 대비는 물론 실질적인 언어 활용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특히 외국인 교수 리오넬 브르노, 제레미 에셋트, 바네사 레진과 불어불문학과 교수진, 조교진이 함께 참여해 몰입형 교육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입생, 재학생 등 약 7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프로그램은 정규 수업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심화된 언어 지식과 프랑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학문적 접근을 통해 전공 적성을 강화하며 향후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불어불문학과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2026년 8월 말에는 「2026년 하계 외국어 능력 신장 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중어중문학과

2026년 중문과 AX 기본 모듈 개발 워크숍 성료

중어중문학과(학과장 이희경 교수)는 2026년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제주 호텔에어시티에서 '2026학년도 AX(AI Transformation) 기본 모듈 개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AI 환경에 발맞춰 인문학적 통찰력과 디지털 실무 역량을 겸비한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적 교육과정을 설계하고자 마련되었다.

워크숍에 참여한 총 11명의 개발진은 2박 3일간의 집중 논의를 거쳐 '디지털 중국학 개론, 중국문화유산 데이터 큐레이션, AI로 다시 쓰는 중국고전'으로 이어지는 3단계 학습 경로를 확정했다. 해당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문학적 파트너로 활용하여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어중문학과는 이번 워크숍에서 도출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2학기부터 본격적인 AX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인문학적 가치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언어로 번역해 나가는 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남대 중국인문연구소 이여빈 교수, 중국인문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중국인문연구소(소장 이희경 교수) 이여빈 학술연구교수가 '2025년도 중국인문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여빈 교수는 「중국인문과학」 89권(2025년 4월)에 발표한 논문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와 기억의 서사'로 이같이 수상했다.

이 논문은 미국으로 이민 간 중국 여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언어가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각도에서 해석함으로써 이민자 경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여빈 교수는 작년 11월과 12월에 각각 '2023 한국중어중문학 우수논문상'과 '2024년도 대한중국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여 이미 탁월한 학문적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일어일문학과

2025학년도 전남대-메이조대 한일 학생 교류회 '한일케미.zip'

일어일문학과(학과장 김용의 교수)는 2025년 10월 31일, 일본 메이조대학 도시정보학부 학생들과 함께 「한일 대학생 교류회 '한일케미.zip」」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대학육성사업 단과대학 맞춤형 자율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캠퍼스에서 실질적인 언어·문화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교 학생 대표의 대학·지역 소개에 이어, 달고나·카루메야키, 한복·기모노, 딱지·멘코, 다루마오토시, 캔다마·공기놀이, 제기차기 등 '한일 문화 비교체험 부스'가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전후로는 일본어 언어역량 자가진단을 병행하고 소그룹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해, 참가자들이 더욱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일문인의 날 [みやび] 개최

일어일문학과는 2025년 11월 13일 ‘일문인의 날 [みやび]’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타코야끼 등 일본 음식 부스와 에마(絵馬) 걸기, 일본 전통놀이 및 복장 등 문화 체험 부스 운영을 통해 전남대학교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사로 구성하였다.

사학과

[국립대학 육성사업] ‘나의 역사유산 견문록’ 프로그램 진행

사학과(학과장 설배환 교수)는 단과대학 맞춤형 자율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9월 18(목)부터 9월 20일(토)까지 2박 3일간 ‘나의 역사유산 견문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학과 교수 및 재학생 약 70명의 인원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답사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이었다.

제주 곤을동을 시작으로 알뜨르 비행장, 백조일손묘역, 향파두리 향몽 유적지 등의 답사를 통해 제주도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현장에서 파악함으로써 참여 교수자 및 학생의 역사적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학과의 예비 역사가 축제 <사학제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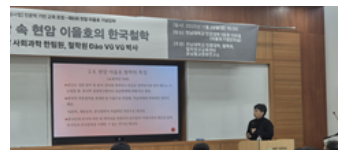
사학과 학생회는 11월 14일(금)에 <사학제전>을 진행하였다. <사학제전>은 4개의 학생 연구회(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덩빙주조)가 1년 동안 진행한 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사학과 학부 과정의 최대 학술행사다. 2025년 <사학제전>에서는 “지배당한 세계, 살아남은 역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꾸렸다. 한국사 연구회는 “포스터로 보는 1929 조선박람회와 다면적 성격”, 동양사 연구회는 “일본 제국주의와 오키나와 탈식민화: 미군정 통치 시기~본토 복귀 이후 시기 중심으로”, 서양사 연구회는 “반제국주의와 탈식민주의: 라스 카사스와 프란츠 파농”, 덩빙주조 연구회는 “문화유산 제도, 명칭의 탈식민화”를 탐구한 성과를 동학과 학과 교수에 공유했다. 발표회장에서 학생들이 열띤 질의응답을 교환하면서 공부의 성과를 공유하고 또 논리적 엄밀성을 다듬는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철학과

제6회 현암 이을호 기념 강좌 개최

철학과(학과장 이원석 교수)는 2025년 11월 28일, 인문대학 1호관 106호 현암 이을호 기념 강의실에서 “제6회 현암 이을호 기념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베트남 사회과학 한림원·철학원 Đào Vũ Vũ 박사를 초청해 「한국학 속 현암 이을호의 한국철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 Đào Vũ Vũ 박사는 베트남 철학계에서 한국철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암 이을호 선생의 철학이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암 이을호 선생의 철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Đào Vũ Vũ 박사는 현암 이을호 선생의 저서 등을 베트남어로 번역해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해당 강좌는 2025년 국립대 육성사업(인문학 기반 교육 포럼)의 지원을 받아 2023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철학 및 실학연구의 선도자로서 K 철학의 가능성을 보여준 고(故) 현암 이을호 교수의 연구를 21세기 K철학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인문학 확산을 위한 3개의 철학 고전 강독 프로그램 운영

철학과는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철학 고전 강독 인증제”를 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박사과정생 이상이 진행되는 강독 프로그램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생을 포함해 시민들의 철학 고전 이해를 돕고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된 행사다. 이번 2학기에는 ① 이지선 교수의 “동시대 프랑스 철학: (신)고전 원전 강독회”, ② 조배군 박사의 “불교 철학 원전 강독 『화엄경(華嚴經)』”, ③ 김들 박사수료생의 “『철학의 원리』로 살펴보는 데카르트 자연철학”, ④ 한준엽 박사수료생의 “독일 근대철학 강독세미나”를 운영했다.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 개최

철학과는 2025년 11월 7일 최성웅 연구원(멕시코 Cimex 교환연구원)을 초청해 “인공지능 시대의 옴니감과 들림 - 문학번역과 자기수양으로서의 언

어”라는 주제로 해외석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강연은 언어에 대한 남다른 감각과 경험을 지닌 강연자의 경험과 더불어 인공지능 시대 번역과 언어 전반을 성찰했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낯선 문화와 언어를 “웁기”고 “들이”는 노력과 그 가치를 논의해 보는 시간이었다.

광주시민을 위한 “미래라이프 철학 아카데미” 운영

철학과는 2025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인1-106호에서 전남대학교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사업(이하 ‘RISE사업’)의 일환으로 “미래 라이프 철학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삶의 방향을 묻고, 시대를 성찰하며, 시대를 살아갈 사유의 힘을 키우기 위한 행사로 이강서 명예교수의 <지중해 철학기행>, 노양진 명예교수의 <몸의 철학, 삶의 철학>, 최대우 명예교수의 <유학 사상의 전통과 미래>, 김현 학술연구교수의 <‘생명’ 철학을 만나다>란 주제로 진행됐다. 본 프로그램은 주 2회, 총 15회의 다소 빡빡한 교육 일정으로 진행됐으나,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 회 평균 20명 이상의 청중이 참여해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광주지역 청소년을 위한 ‘빛고을 청소년 철학 교실’ 운영

철학과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광주지역 3개의 고등학교에서 “빛고을 청소년 철학 교실”을 운영했다. 본 행사는 청소년들의 자율적 사유력과 사회적 성찰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광주 소재 3개의 학교에서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철학적 고찰(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 만들기)”(광주상일여자고등학교), “나를 만나는 글쓰기, 철학 에세이와 함께하는 사유 여행”(광주지혜학교), “과학혁명은 어떻게 가능한가?”(전남고등학교)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약 4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철학 학술 답사 : 화엄사상과 선사상 탐구’ 개최

철학과는 단과대학 맞춤형 자율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11월 6일~7일 동안 철학 학술 답사를 개최했다. 철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화엄사상의 본산인 화엄사를 방문해 『화엄경』의 핵심사상을 학습했고, 천음사를 방문해 인도 요가 수행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진 후, 선사상의 맥을 유지·발전시켜온 백양사를 방문해 선불교 사상에 대해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지난 해에 이어 2025학년도에도 철학 학술 답사의 학생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2026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성료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주임교수 정미라, 철학과)는 인문 가치에 기반한 커뮤니티 교육, 연구를 확장하기 위해 인문학연구원이 구성·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이다. 이번 2026학년도 전기 신입생 전기 모집에서 8명(석사 3명, 박사 5명)이 합격하였다.



대만 국립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과 대학원생 학술교류 행사 성료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는 2026년 1월 28일, 대만 국립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과와 함께 대학원생 학술교류 행사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인문학연구원과 국립정치대학 간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양교 대학원생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 학술 교류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서는 김태준(전남대)의 광주 시민미술운동 연구, 후이문(국립정치대)의 김숨의 『한 명』 번역 연구, 유진영(전남대)의 교육 협치와 학교 차치 논의, 유여운(국립정치대)의 PBL 기반 한국어 회화 교육 모형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 이번 학술교류는 인문학 연구의 지역성과 국제성을 연결하고, 차세대 연구자 간의 학문적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호남학과

2025학년도 하반기(학과 논문발표회 개최)

호남학과(주임교수 최유준, 호남학연구원)는 11월 14일 학과 교수들과 대학원생이 참여한 가운데 2025학년도 하반기 석박사 학위청구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발표에서는 정만기 석사수료생이 ‘미래유산 선정현황과 활용방안’을 발표하였고 윤예현 석사수료생이 ‘광주통일미술제(안티비엔날레) 연구’를, 김승환 석사과정생이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의 이행기 정의에 대한 성찰’을 발표하였다.

발표 후 참여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갔다.



역사문화연구소

푸단대-전남대 MOU 체결

푸단대학교 역사학과와 전남대학교 사학과, 푸단대학교 문사연구원과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센터장 설배환, 사학과 교수)는 2026년 1월 20일(화) 학술 교류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진행했다. 두 차례 MOU를 체결한 뒤 푸단대학교의 장칭(章淸), 장중민(張仲民) 교수가 특별강연을 진행하였다. 장칭 교수는 “자연과 사람 : 글로벌사적 배경에서 본 중국 지식사의 구상(自然与人 : 全球史背景下中国知识史的构想)”, 장중민 교수는 “위생의 상업화 : ‘위생’과 근대 중국의 소비문화의 구상(‘卫生’的商业化——‘卫生’与近代中国消费文化的建构)”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어 광주 시내 및 전주 일대를 답사하였다. 이번 MOU 체결식은 푸단대학교 역사학과와 전남대학교 사학과, 푸단대학교 문사연구원과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간의 학술 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였다.

역사문화연구소

『용봉인문논총』 제67집 발간

인문학연구소(소장 조경순,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지난 10월 30일에 『용봉인문논총』 제 67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67집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문의 역할을 성찰한 연구들을 비롯하여, 언어·문화 전반의 다채로운 주제를 아우르는 총 16편의 수준 높은 논문이 수록됐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인문학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기초 학문의 융합적 가치를 확산 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인문학연구원

HK3.0사업단 1차년도 동계워크숍 실시

인문학연구원 HK3.0사업단(단장 정미라, 철학과 교수)은 2026년 1월 27일부터 30일까지(3박 4일) 대만 타이페이 일원에서 동계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인문학연구원은 대만 국립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문학연구원 주관 학과인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대학원생들과의 학술교류 행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인문학연구원은 대만 228국립기념관을 방문하여 플루리질리언스 연구 아젠다와 연계한 국가폭력과 리질리언스 관련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현대사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공동체 회복의 문제를 현장 중심에서 탐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인문학연구원은 대만 국립정치대학 및 228국립기념관과의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확대하여, 플루리질리언스를 핵심 개념으로 한 국제 공동연구와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연구소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문학연구원 HK+사업단 총괄평가 ‘우수’ 등급 선정

인문학연구원은 2025년 12월 16일, 2018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초개인화 시대, 통합과 소통을 위한 가족커뮤니티 인문학」을 주제로 수행한 인문학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의 총괄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 이번 평가는 사업의 단계별 목표에 부합하는 연차별 활동 실적이 연구 아젠다와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도출되었으며, 연구 활동의 정량적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국제화 부문에서는 국제 공동연구 수행, 공동 교육과정 개발 등과 관련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완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인문학연구원은 HK+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연구 역량을 토대로, 향후 국제 공동연구 확대와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국제적 연구 역량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 자격증 프로그램 개최

인문학연구원은 2025년 9월 9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 6차시에 걸쳐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 자격증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는 전국 최초로 인문학 기반의 커뮤니티 역량을 인증하는 자격증으로, 마을 활동가, 커뮤니티 기관 종사자, 교사, 학생, 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이 함께하였다.

이번 자격증 프로그램에는 1회 평균 42명, 총 수강자는 251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전 과정을 이수한 35명이 수료의 영예를 안았다. 정미라 원장은 “이번 예비 과정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료자를 대상으로 전문 자격 검증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공감과 공생의 인문학적 가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공동체 회복을 선도할 인문커뮤니티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관계 회복과 공동체 재건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인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학술대회 개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3.0 플루리질리언스 사업단은 2025년 12월 5일, 인문대학 1호관 106호 이을호기념강의실에서 제1회 국제학술대회 「개인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리질리언스 연구 지형도(Mapping Resilience Research: Personal and Communal Perspectives)」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개인과 공동체 차원의 회복탄력성을 다층적으로 조망하고, 재난과 복합위기의 시대에 인문학적 리질리언스 담론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팬데믹, 기후위기, 사회적 단절, 정치적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불안정성이 중첩되는 전 지구적 전환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질리언스’는 단순히 이전 상태로의 복원을 의미하는 개념을 넘어, 위기 속에서의 전환과 적응,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윤리와 삶의 방식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 사회과학 중심의 리질리언스 논의를 인문학적 성찰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인문학연구원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리질리언스를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적 전환과 사회적 재구성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탐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국제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확대하여, 플루리질리언스를 중심 개념으로 하는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

인문리빙랩 〈플린트 시의 수돗물 오염사태와 공생 리질리언스〉 개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3.0 사업단은 2025년 12월 8일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기념홀에서 생태 위기와 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한 인문리빙랩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남대학교 젠더연구소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어-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되었다.

강연에는 미국 Kent State University 평화와분쟁학부 부교수인 Ashley E. Nickels가 연사로 참여하였다. 니클스 교수는 저서 Power, Participation, and Protest in Flint, Michigan을 중심으로, 플린트 수질 위기 사례를 통해 환경 재난이 민주주의, 시민 참여, 공동체 회복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는 생태 위기를 기술적 관리의 문제가 아닌, 공생과 책임의 윤리라는 관점에서 재사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한우리 인문학연구원 연구원의 사회로 노고운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와 함께 생태 위기, 젠더, 돌봄,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플루리질리언스 개념의 이론적·실천적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이번 강연은 국제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생태 위기 시대 인문학의 역할을 성찰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학술 교류의 장이 되었다.

36~39차 콜로키움 성료

인문학연구원 HK3.0사업단은 2025년 9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제36~39차 콜로키움을 연속 개최하였다. 이번 콜로키움 시리즈는 「한국현대사와 회복의 인문학」을 시작으로, 생태·환경 리질리언스, 갈등의 전환과 포스트갈등 시대의 문학, 데이터 액티비즘과 리질리언스에 이르기까지 동시대 사회의 위기와 전환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는 장으로 기획되었다. 각 회차에서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상처와 민주주의, 생태 위기, 갈등과 기억, 기술과 시민 참여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리질리언스 개념의 확장 가능성이 다각도로 논의되었다. 특히 개인의 경험과 사회 구조, 공동체의 회복을 연결하는 플루리질리언스 관점이 이론적·실천적으로 탐구되었다. 이번 콜로키움은 인문학이 위기 시대에 제시할 수 있는 해석의 힘과 공존의 윤리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학술 교류의 장이 되었다.

일본문화연구센터

2025년도 국제학술심포지엄 및 창작시연 개최

일본문화연구센터(소장 김정례, 일어일문학과 교수)는 2025년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의재미술관과 공동으로 '2025 국제학술심포지엄 및 창작시연'을 개최했다. '동아시아 정형시의 전승과 향유양상 - 시조·렌가·한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미쓰타 가즈노부 교토레가회 고문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국내외 연구자들이 정형시 전통과 생성시 활용 창작 등 다양한 관점을 공유했다. 둘째 날에는 의재미술관에서 렌가·시조·한시 작가들이 참여한 창작시연과 작품 발표가 진행됐으며, 광주풍류보존위원회 고영란 회장의 축하공연도 더해져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학·예술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중국인문연구소

중국인문연구소(소장 이희경, 중어중문학과 교수)는 2월 9일, 전남대학교 김남주홀에서 '대전환의 시대, 중문학 연구의 다층적 시도'를 주제로 2026년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의 첫 발표는 오랜 기간 중국 신화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온 연세대학교 김선자 교수가 맡아, 'AX환경에서 중국 소수민족 신화 연구의 가치와 지향'을 주제로 중국 소수민족 신화 연구의 학술적 의미와 방향성을 조명했다.

이어 최근 여러 학회에서 학술상과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며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전남대학교 이여빈 교수가 '중국 웹소설 『투파창궁』에 나타난 신화적 원형의 차용과 변용 양상 연구'를 발표해, 중국 신화적 요소가 현대 대중서사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변용되는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엄지 교수는 '중국어 음운학과 디지털 연구'를 통해 언어학 분야에서의 디지털 연구 동향과 방법론을 소개하고, 향후 연구 가능성을 탐색했다.

이희경 중국인문연구소장은 "매년 서로 다른 연구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우수 연구자들을 초청해 학술대회를 구성하면서 논의의 깊이와 폭이 더욱 충실해지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각 발표자가 시도하는 개성 있는 연구 방법이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밝혔다.

한국어문학연구소

[국립대학육성사업] '재난의 시대, 재기의 MZ 인문학' 운영

한국어문학연구소(소장 백승주,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공소통실천센터는 2025년 '재난과 위기의 시대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갈 동력(Movement)과 시대정신(Zeitgeist)'을 추구하는 '재난의 시대, 재기의 MZ 인문학'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2025년도 MZ 인문학은 '재난'과 '위기'라는 키워드로 우리 사회의 다층을 조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여정으로 기획되어 7회차 강연에 누적 450여 명이 참여하며 2024년 진행한 '초연결 사회, 미래를 잇는 MZ 인문학'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학술대회 <소통의 새로운 풍경: 지역어, 표준어, 언어 다양성의 공존> 개최

한국어문학연구소가 참여하는 전남대학교 KOR컨소시엄은 한국사회언어학회와 전국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소통의 새로운 풍경: 지역어, 표준어, 언어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언어가 가지는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나익주 언어학자의 <말들의 풍경: 인지언어학의 시각>, 조태린 교수(연세대)의 <지역어와 표준어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현실>이라는 기조강연을 비롯하여 연구자 19명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지역어와 표준어의 관계를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탐구하고, 언어 다양성이 공공영역과 일상적 소통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호남학연구원

호남학연구원-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업무협정 체결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원장 정명중 교수)과 전라남도 농업박물관(과장 김옥경)이 9월 25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학술 네트워크의 구축, 지역의 농경문화를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지역민의 농업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체험 활동 프로그램 추진, 지역학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하기로 하였다.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대표 기관인 대학 연구소와 농도(農道) 전남의 특성을 살리고 농경문화유산을 조사·연구·수집·보존·전시하기 위해 설립된 농업박물관이 협정식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사, 특히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 민속, 문화 등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농업 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와 잊혀져 가는 지난 세기에 대해 기억하는 공동의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조사 연구' 착수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재)한국학호남진흥원과 함께 호남의 누정원림을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자료 조사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지역의 전통 문화유산인 호남의 누정원림에 대한 상세 조사를 바탕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누정원림을 선정하여 잠정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전체 여정의 첫 걸음이다. 연구책임자는 호남학연구원 조태성 교수가 맡으며, 역사·민속·건축·문화재 등 각 분야별 전문 연구 인력이 참여하여 2026년 3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제11회 영호남의 대화-영호남의 누정 2' 학술대회 개최

호남학연구원과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이 제11회 영호남의 대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15년부터 매년 양 대학을 오가며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영호남의 누정'을 주제로 그 두 번째 이야기의 장을 만들었다. 양 대학 연구원에서 각각 3명씩 총 6개의 주제를 발표하여, 영호남 누정에 대한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논의를 통해 향후 양 지역 누정의 가치를 찾고 이를 활용한 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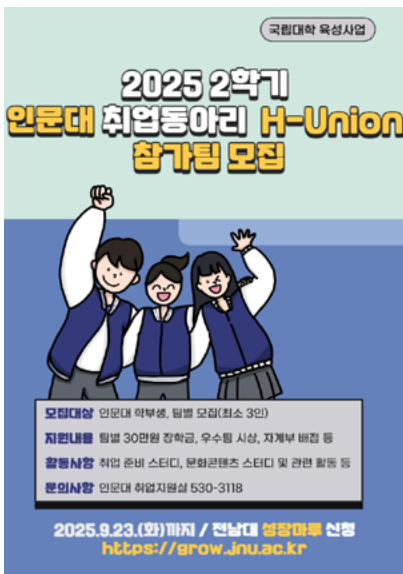


2학기 인문대 취업교과목 『핵심취·창업전략』 운영

인문대학은 취업교과목 『핵심취·창업전략』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교과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과목은 2·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소개서 작성법 스킬과 같은 실질적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수업 내용은 채용동향, 직무기업 분석, 자기소개서, NCS 및 필기전형, 면접 대비 스킬, 취업계획서 등 취업의 서류전형에서부터 마지막 면접까지를 포함하고, 주제별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66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다. 이 교과목은 2026년 1학기에도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문대 취업지원실(인2-202)에 문의하면 된다.

일자	주제 및 내용	강사/진행
9. 3.	오리엔테이션	인문대 취업지원관
9. 10.	기업 채용 트렌드 및 인문대 학생 취업전	좋은인재교육 조익수
9. 17.	인문계열 출신 현직자 직무 특강	DB손해보험 최은열(인문대 졸업생)
9. 24.	인문계열 진출 직무 및 기업 분석	플레이아카데미 지수현
10. 1.	공공기관 취업 전략	스펙터로스(前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원) 김순호
10. 15.	자기소개서 작성법	의미공학연구소 유재천
10. 29.	자기소개서 사례 분석	의미공학연구소 유재천
11. 5.	기업 인적성검사 및 NCS 필기전형 이해	스펙터로스(前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원) 김순호
11. 12.	면접 대비 1분 자기소개	이겨라 전문강사
11. 19.	면접유형별 대처 요령	위더스커리어 황혜진
11. 26.	창업 특강: 기업가 정신과 창업 마인드셋	아르디에 김영환
12. 3.	대학생활 및 취업계획 수립	커리어도트 박미희
12. 10.	취업성공사례 및 종강	인문대 취업지원관

[국립대학 육성사업] 2학기 인문대 취업동아리 H-Union 운영



인문대학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인문학 전공 특성을 반영한 취업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인문학 전공 특성을 반영한 문화 동아리 뿐 아니라 실제 고용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직무에 대한 스테디 동아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취업동아리 'H-Union' 프로그램을 학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학기에는 9월중 참가팀을 모집한 후 12월까지 팀별 활동을 성

공적으로 진행하여 총 16개팀 53명이 수료하였다. 이들은 총 5차시 이상의 모임보고서를 제출하고 활동비(30만원)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참가팀 교육의 일환으로 스피치 전문 강사의 발표 및 면접 대비 스피치 교육에도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12월 29일 성과발표회를 통해 팀별 활동 내용과 성과, 추후 계획을 발표하였고, 총 4팀의 우수팀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문대학 진로취업 계획서 공모전 개최

인문대학 학생들은 인문학 전공의 특징과 강점을 살린 직업을 비롯하여 다른 추가적 역량을 겸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직업 세계로 진출하므로 이에 걸맞게 취업 준비 및 실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 활동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인문대학 차원에서 '진로 취업 계획서' 공모를 통해 재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목표를 고민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학업 계획 수립, 직무 정보 수집, 대외 활동 참여, 기업체 체험 등)을 담은 대학 생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독려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 기간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이고, 총 27명의 학생이 응모하였다. 이 중 총 8편(최우수 1편, 우수 2편, 장려 5편)을 수상작은 선정하여 시상하였고 우수작은 인문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탑재하여 재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인문대 취업서포터즈 '인사이다' 운영



우리 대학은 학생처 취업지원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문대 취업서포터즈 '인사이다'를 운영하고 있다. '인사이다'는 사이다처럼 인문대 학생들의 취업 고민을 시원하게 뚫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3월 총 8명(학과별 1명) 학생을 선발하여 11월까지 운영하였다. 선발된 서포터즈 팀원들은 인사이다 온라인 홍보 계정을 통해 카드뉴스/월간레터 취업정보를 꾸준히 제공하였고, 오프라인 활동으로 중간고사 응원 사업, 인문인의 날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인문대 출신 취업 동문(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진에어 현직자)을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영상을 우리 대학 취업포털에 게시하여 많은 학생들이 취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취업서포터즈 사업은 2026년 3월 신학기에 새로운 팀원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인스타그램 아이디 insida_supporter를 검색하거나 팔로우를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일본문학을 읽는 시간

김정례 외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5.09.

이 책은 일본과 일본인을 알기 위한 창구로서 문학을 선택하여 동아시아를 염두에 두고 일본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읽어내 고자 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제1부, 일본문학이 걸어온 길]에서는 일본인이 일본열도라는 공간에 살아온 역사를 문학의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다루었다.

[제2부, 일본문학이 걸어오는 말]에서는 일본인이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기록한 각 시대의 사상과 감성을 언어화한 문학작품을 선정하여 읽음으로써 문학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들의 '말'을 듣고자 했다. 여건상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들, 디아스포라와 재일코리안, 근현대 일본 시문학, 여성문학, 한일문학교류의 현재와 가능성 등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한편 이 책은 대학에서의 일본문학 강의교재용으로 만들었다. 원고의 일부 내용은 저자의 독자의 시각이기보다는 기존 연구성과를 강의 성격에 맞추어 편집 정리한 부분이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학술적 논의로 전개되는 논문집 형태가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 일본문학의 주요 면모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읽게 하자는 취지 때문에 부득이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원용한 내용의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대신 글 말미에 참고한 글의 목록을 제시하였으니 관련 연구자와 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장자 내편(수정완역판)

양희석 역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25.10.

이 책은 제1장 구만 리 상공을 날아올라 북쪽 바다에서 남쪽 바다로 날아가는 봉새 이야기로 시작하므로, <웅비하는 봉새처럼> 이라고 부제를 달았다. 봉새의 웅비를 통해서 소요유를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아울러 소요유를 구현하는 사람이 바로 도가의 이상인 지인至人이고 신인(神人)이며 성인(聖人)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봉새는 그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제2장 <천하를 준다 해도>는 천자의 자리를 양도하려는 요(堯) 임금과 이를 거절하는 허유(許由)의 이야기이다. 허유는 웅비하는 봉새, 다시 말해 소요유를 구현하고 있는 자에게 천자라는 직책을 사양한다. 이는 소요유가 천자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기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제3장 <막고야산(濼古射山)의 신인들>은 막고야산에 있는 신인들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소요유를 거듭 설명하고 있다. 도의 세계에서 도와 함께 하는 신인들은 개인적으로 절대 자유를 누리면서, 아울러 풍년을 들게 하는 커다란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소요유가 개인적 차원의 현실 도피가 결코 아님을 잘 보여준다. 제4장 <쓸모 너머의 쓸모>는 장자의 친구이자 당대 최고의 말꾼인 혜자(惠子)와의 대화를 통하여, 세속의 작은 쓸모를 넘어서는 도의 큰 쓸모를 설파하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이 생동감이 넘치는 비유를 들어가며 벌이는 논쟁이 매우 흥미롭다. 소요유의 쓸모가 바로 도의 쓸모이다. 공간(宇)과 시간(宙)을 초월하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우주적 삶이라 부른다.



인간중심주의와 환경윤리학

김양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5.11.

이 책은 최근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책은 환경 파괴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인간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동시에 인간중심주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저자는 인간중심주의에 섞워진 오해를 풀기 위해 강한/약한 인간중심주의, 실천적/이론적 인간중심주의 등을 구분하며, 개념의 복잡성을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칸트철학의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밑바탕으로 환경윤리를 정립하는 데 도덕적 인간중심주의가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도덕의 주체이자 창시자로서 불변의 위상을 가지지만, 내재적-비판적으로 이해된 인간중심주의 혹은 약한 인간중심주의를 통해 인간이 아닌 자연 존재자들에게까지 책임과 의무를 확장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인간중심주의는 문제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원리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대국인가

티모시 브룩, 설배환 외 역 마르코폴로, 2025.12.

13세기 몽골 제국의 중국 지배부터 20세기 국제질서 속 중국의 위치 변화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세계와 맺어온 관계 구조를 장기 시야에서 분석한다.

기존 중국사 서술이 왕조 내부의 정치·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 책은 교역·외교·전쟁·종교·이주·전염병 등 다양한 접촉면을 통해 중국이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떻게 '대국으로 구성되어 왔는지'를 묻는다. 특히 국가나 제도를 설명하기보다 구체적인 인물·사건·공간을 통해 '대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 주는 서술 방식을 취한다.

각 장이 그림, 지도, 사진 등 하나의 이미지를 출발점으로 삼아 중국인과 외국인 인물 한 쌍을 등장시키고, 이들이 엮는 사건을 통해 중국과 세계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점에서 회화적이다.

몽골 칸의 초상화, 남경의 선교사와 개종자, 티베트 라마와 청 황자, 광둥 무역과 유럽 상인, 국제기구 속 중국 외교관에 이르기까지, '대국'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와 조율의 결과로 제시된다.



동천마을 여성들의 삶과 리질리언스

인문학연구원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5.12.

이번 출간은 개인의 삶의 서사를 통해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탐구해 온 인문학연구원의 플루리질리언스 연구 성과로, 지역 기반 인문학 연구의 실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전남대학교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대학생 14명이 참여하여, 구술자 7인과 매칭되어 3차례 이상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세대 간의 교감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기억을 매개로 한 관계 회복과 상호 치유의 장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구술생애사가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삶을 긍정하며 공동체적 회복을 촉진하는 '기억 리질리언스'의 실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족시인 김남주
그의 시와 정신을 기리는 공간

김남주 기념홀

개관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주말: 오전 10시 ~ 오후 5시

(5월 한정 개관)

특별개관

신청에 의함

행사 시에는 기념공간 관람이 제한됨



김남주기념홀 운영위원회